

천주의 성 요한 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15-1번지(태봉로 32)
대표전화 : 062 - 510 - 3071~2, 팩스 : 062 - 510 - 3151



1958년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 아일랜드 관구 소속 5명의 수사들이 긴 뱃길을 항해하여 전쟁으로 폐허가 된 광주에 도착한 후 병자들을 위한 지역 의료 및 가난한 이들과 고아들을 위한 구호활동 등의 수도회 사업을 전개하였다. 1960년 내과·피부과를 중심으로 천주의 성 요한 병원을 개원하여 수도회의 핵심 가치인 환대, 동정, 존경, 정의, 탁월함을 기준으로 수도회의 사명인 손님중심, 인간화 된 병원, 전인적 치료를 펼치고 있다.

1980년부터는 저소득층의 말기환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방문을 실시함으로써 호스피스 활동의 막을 올렸다. 아일랜드 더블린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가정방문을 담당하던 브랜던 수사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호스피스 설립을 위하여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재교육을 받았다. 이후 1990년부터는 호스피스 활동이 전무했던 광주·전남 지역에서 5권의 전문서적을 번역, 출판하고 대중과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강의를 하였으며, WHO 의료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제적인 교류 활동을 실시하였다.

재가 암환자와 가족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7년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7개의 병상과 주간 보호센터를 개설하였다. 현재 22병상의 독립병동으로

운영중이다.

2000년에는 중국 연변에 3명의 수사를 파견하여 호스피스병원 건립을 추진하였고, 2004년 연변 호스피스 병원 의료팀(의사 1명, 간호사 3명)에게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 호스피스 병원을 개원하였다.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약 천여 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월 1회 월례회를 통해 정서적 지원 및 보수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대학생들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 약 400여 명이 수료하였다.

또한, 2006년 의료인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단기 교육과정을 16주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2007년 호스피스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 추모미사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정기적인 호스피스 치료팀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간호사가 배정되어 환자와 가족 상담을 하고 있다. 매주 1회 가족모임을 통해 가족의 요구를 파악하여 지원하며, 사별가족을 위해 정기적인 전화상담과 위문카드를 발송하고 매년 1회 사별가족을 위한 추모미사와 모임을 실시한다. 또한 가족들에게 상담실, 교육실, 원목실, 경당(소성당), 및 그 외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호스피스 팀은 의사 2명, 간호사 10명, 가정전문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원목 담당자 1명,



자원봉사자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학제적 팀 접근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1998년에는 병동책임을 맡은 3명의 간호사가 영국 성요셉 호스피스 병원, 영국 헤롤드크로스병원, 아일랜드 더블린의 호스피스병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의사 2명은 영국에서 호스피스 완화의학 분야의 연수를 하였다. 그 외에도 호스피스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간호사들이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꾸준한 직원양성을 위해 호스피스 전문교육 과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원내스터디를 통해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필독서를 읽고 있다. 이외에도 자아 성장그룹, 의사소통을 위한 자기표현 훈련, 리

더쉽 교육 등에 참여한다. 매주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손님의 다양한 욕구를 이해하고 전인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를 '손님(Client)'으로 칭하며, 호스피스 원목서비스를 위해 전담 수도자가 매일 손님을 방문하여 영적 돌봄을 실시한다.

2005년 이후 10년 연속 보건복지부 주관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 암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관내 보건소와 협약을 맺고 재가 암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2008년 수도회 5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하나로 10월 28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호스피스 완화의의료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회원되심을 축하드립니다

▶▶ 신입회원

대전성모병원 : 김소영
인천성모병원 : 방인옥, 박명순, 김경례, 이은성
성바오로병원 : 황연자, 김은희, 이종영
익산성모병원 : 양인숙, 김혜경, 박윤영
청주성모병원 : 연미옥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관옥, 유옥희, 유광자, 남명희, 김경례, 임연수,
조현복, 어영란

봉사자의날 찬조금 : 라정란회장, 박재순감사,
유송자전임이사, 서울성모병원